

정례브리핑

2020.10.5(월)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일정입니다.

장관은 오늘 특별한 일정 없이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내일 화요일 10월 6일에는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어서 10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보고, 10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준비된 말씀을 드리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우리 측의 공동조사 요구에 북한의 반응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와 관련해서 아직 북측으로부터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북측의 반응이 지금 일주일 넘게, 대통령이 공동조사 요구를 촉구한 뒤로부터 일주일 넘었는데 북한이 아직까지 반응을 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떻게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 저희도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이고 북한이 하루 빨리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 열병식을 북한이 당창건 기념일 맞아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병식이라든가 당창건 기념일 행사 관련된 북한의 동향을 포착한 게 있나요?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답변> 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준비 동향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련 동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 당창건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코로나가 변수이기는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쪽의 방문 의사가 있다든지 해외 외빈 초청 이런 관련 동향이 있나요?

<답변> 당창건 관련해서 해외 외빈 동향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연장선상에서 열병식에서 전략무기를 공개한다거나 그러한 동향은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답변> 전략무기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입장을 밝히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